

美國圖書館

—實務訓練及視察報告—

II

朴 啓 弘

目

次

第 1 部

前 言

第一章 美國圖書館의 概況

第二章 各級圖書館

1. 國立圖書館
2. 大學圖書館
3. 公共圖書館

4. 學校圖書館(省略)

5. 特殊圖書館(省略)

第 2 部

第三章 運 營

第四章 機械化

第五章 司書와 司書教育

結 論

第 2 部

第三章 運 營

한 機構가 그 體質을 改善하고 成長하여 目的과 活動範圍가 넓어짐에 따라 그 機構內에 從事하는 사람들도 成長하고 變化하여야 한다. 美國이 오늘과 같이 훌륭한 圖書館을 자랑할수 있는 것은 美國國家經濟의 豊盛함에도 힘입은바 있겠지만 1920年代以後 만은 創造의인 知性을 가진 사람들이 圖書館界에 들어와 獻身的인 奉仕로써 時時로 變하는 社會에 順應하고 時代의 欲求를 充足 시킬수 있는 圖書館을 運營하여 온데 그 根本的인 原因이 있는 것이다.

美國의 圖書館界에도 어느 다른나라 못지 않게 財政難, 人的資源難等 여러가지 問題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圖書館

界에 從事하여온 사람들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그들이 處하여 있는 立場과 앞으로 取하여야할 方向을 判斷決定하는데 있어서 目前의 一利보다 將來의 大計를 爲하여 보다 努力 하였던 것이다. 現在 美國에 있어서 날로 發展하는 圖書館은 大部分 그 運營管理를 圖書館專門人이 하고있으며 非專門人에 依하여 運營되는 圖書館에서는 大部分의 경우 發展에의 意慾을 찾아볼수 없었다.

한 圖書館의 運營管理는 勿論 館長이 한다. 그러나 그 圖書館의 根本方針은 그 圖書館의 性格, 奉仕對象에 따라 所屬된 高次의 機關에서 決定된다. 即 公共圖書館은 圖書館運營委員會 또는 教育委員會같은 所屬委員會, 大學圖書館같은 總長 또는 大學圖書委員會等等 이러한 議決機關에서 決定하여 주는것을 그대로 實踐에

을기는것만이 能한 館長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議決機關에 作用하여 改善의 必要性, 앞으로의 方向을 說得하고 具體的으로 提示 할수 있는 사람이 더욱 要望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建物

오래된 建物は 部分的인 內部改造를 하고 있으며 新築建物は 設計에 있어서 建築設計者에게만 一任하는 것이 아니라 그 圖書館의 앞으로의 機能에 따라 事前에 具體的인 資料와 條件을 提示할뿐만 아니라 設計途中에도 恒常 圖書館專門人과 設計者가 議論을 하며 基礎的인 設計가 끝나면 外部에서 圖書館 專門人들을 招請하여 함께 長短을 議論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最少限의 經費로 最大限의 效果를 얻을수 있는 建物を 지으며 空間의 利用도 最大限으로 하고있다.

藏書

全般的으로 藏書蒐集은 地方 또는 研究分野等의 特色을 살려 必要以上の 擴張 또는 競爭을 하지 아니하며 各自 未及한 點은 各種의 協同計劃에 依하여 解決하고 있다. 이 協同計劃에는 資料의 蒐集, 整理, 相互貸出, 收藏等에 있어서 全國的인 것 地方的인 것 또는 地域的인 것 여러가지 있다. 蒐集된 資料는 곧 整理되며 蒐集과 整理는 各級圖書館이 모다 中央化되어 있으며 다만 整理에 있어서 特殊한 分野나 言語에 限하여서는 分館에서 이를 別途로 다룬다. 即樂譜音響 特殊科學分野의 資料는 中央에서 一次整理된것을 各分館에서 再整理 하던지 또는 東洋學關係資料와 같이 처음부터 各分館에서 整理를 專擔하고 있다.

財政

筆者가 본 數十箇中에 充分한 豫算으로 滿足한 運營을 한다는 圖書館은 단한館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豫算이 不足하여 일을 못한다는곳도 보지못하였다. 有能한 館長에게는 一定한 豫算額이 問題가 아니라 部下職員의 能力이 問題인 것이다. 能力만 있으면 財政問題는 어떻게든 解決될수 있다고 믿고들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라는 樂天的 格言을 믿어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方向으로 꾸준히 努力하는데 따라 財政的인 問題도 解決될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의 合理的인 解決의 하나는 協同計劃에 依한 資料의 分擔 蒐集과 相互貸출인 것이다. 勿論 그들에게도 浪費는 있다.

年度末 가까이 가서 一年間 아껴두었던 돈으로 資料의 內容檢討도 없이 무례기 注文을 하는것도 보았으며 必要以上の 人員으로 館長自身 파이프 蒐集으로 消日하는곳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例는 極히 드문 例外이며 有能한 館長들은 언제나 追加豫算이나 特別基金의 出處와 時間을 잘 알고 있었다.

人事

現在 美國圖書館界의 가장 큰 難問題는 專門司書의 不足이다. 圖書館專門誌에는 恒常求職廣告보다 求人廣告가 더 많이 난다. 이 求人難에 따라 解決이 아니되는 問題가 即 無能力者의 交替이다. 날로 增加하는 作業量과 奉仕量에 따라 人力도 增加하여야 할터인데 現在의 教育施設로는 需要를 充足시킬수 없는 現象이다. 따라서 停年이나 바라보고 安易한 그날 그날을 보내는 非能率的인 司書들을 하로아 침에 交替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인 것이

다. 그러므로 現在는 進級, 增俸을 能率主義에 依하여 하고 있으며 大規模圖書館에서는 職場訓練을 實施하고 있는곳이 많다(約 30%).

協同計劃

協同計劃에는 蒐集, 收藏, 整理, 貸出, 等 여러면에서 全國的인 것에서 地域的인 것에 이르는 여러가지가 있다.

全國的인 計劃

美國議會圖書館에 依해 領導되고 全國의 各種圖書館의 直接 또는 間接的인 協力下에 이루어지는 National Union Catalog은 協同計劃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라 하겠다. 이 綜合目錄에 依하여 資料의 有無와 그 所在을 밝힐수 있으며 相互貸出에 依하여 求讀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綜合目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國家的인 書誌管掌이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1960년에는 年間 3萬餘件의 索出申請이 드러왔으며 그중 75%는 이 綜合目錄에서 찾아왔다고한다. 이 綜合目錄은 1956年前部와 1956年後 部의 2部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全國的인 蒐集計劃으로는 1948年 Farmington市에서 開催된 會議에 依하여 세워진 Farmington Plan이 있다. 이計劃은 二次大戰中の 經驗으로 보아 全世界의 文獻을 蒐集하여야 되겠다는 必要에서 最初에는 50個의 圖書館이 主로 歐洲諸國의 資料를 各己分擔하여 蒐集하기로 하였든 바 後에는 66個館이 全世界의 資料를 蒐集하게 되었든것이다. 이곳에는 主로 大學校나 研究圖書館들이 參與하고 있으며 資料도 翻譯物이나 娛樂物을 除外한 研究資料가 그 蒐集對象이되고 있다.

全國的인 이니 지금은 오히려 全世界의 이라고 할 수 있는 圖書의 交換을 爲하여

서는 USBE(United States Book Exchange)가 있다. 이것은 各圖書館의 相互交換에서 一步 前進하여 보다 全體的인 立場에서 資料를 交換하자는 目的에서 이룩하여졌으며 이곳에는 美國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有數한 圖書館이 加入하여 있다.

地方的인 計劃

美國을 地方的으로 大別하며 各地方에 地方文獻 Center를 設置하고 이地方 Center에는 傘下 各圖書館의 綜合目錄이 設置되어 있다. 全國的인 綜合目錄이 어느程度 完備한 段階에 이르면 이地方別 綜合目錄은 非經濟的인 爲로 解體되어야 한다는 議論도 있지만 他方 이地方別, 綜合目錄은 地方圖書館의 紐帶와 相互協助를 더욱더 增進시키리라고 굳게 믿는이들도 있다.

이외에 Chicago를 中心한 Midwest Inter-Library Center 같은 것도 있으며 이 Center에는 20個의 研究圖書館들이 參加하고 있다. 이 Center에서는 蒐集, 整理, 貸出을 모다 緊密한 協同下에 하고 있으며 地方 또는 地域別 協同體의 좋은 例라고 볼 수 있다. 大體的으로 州別 協同體의 中心은 州立圖書館이되며 이것은 1956年에 制定된 圖書館法에 그 原因의 一部分이라고 보겠다.

地域別計劃

한 地域社會內에서는 大部分 二, 三個의 圖書館이 하나의 協同關係를 맺는다. 이것은 財政, 行政, 奉仕의 經濟的인 運營을 目的으로 하며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各己 圖書館의 性格에 따라 蒐集을 分擔하고 相互奉仕를 하게 되는것이다. 가장 좋은 例로는 Chicago 公共圖書館과 John Crerar Library와 Newberry Library의 協同關係인바 Chicago 公共圖書館은

學生, 敎師, 及 一般을 爲한 모든 一般基本的인 資料를 購入하고 John Crerar Library는 科學과 工學을 爲한 研究資料를 Newberry는 人文系와 藝術部門의 資料를 各各 分擔 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외에도 特殊分野에 있어서의 協同計劃은 地域別로 M. I. T., Stanford 大學圖書館 John Crerar Library 등이 매우 能動的인 活動을 하고있다.

第四章 機械化

날로 增加하는 資料를 整理하고 收藏하고 보다 빠른奉仕와 作業의 能率을 올리기 爲하여 圖書館에도 漸次 機械가 導入되어가고 있다. 簡單한것은 打字機에서 複雜한것으로는 電子計數機에 이르기 까지 使用되는 機械는 各樣各色이다. 資料運搬을 爲한 昇降機, 整理室에서 使用되는 電氣器具 簡單한 凹凸版 印刷器具等을 除外한 機械類는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 1). 場所節約과 資料蒐集을 爲한 機具.
- 2). 各種 分類 計數機.
- 3). 送信及 複寫機具 4). 音影機具

1). 場所節約과 資料蒐集을 爲한 機具
1930年 以後에 場所를 節約하고 資料蒐集을 爲한 가장 便利한 機具는 Microcamera 이다. 現在 大規模圖書館에는 거의 이 Microcamera 와 그 進行施設이 되어있으며 收藏하는데 莫大한 場所를 必要로하는 新聞雜誌等은 Microfilm 化 되어 收藏되며 購得하기 困難한 資料도 또한 Microfilm 에 쉽게 複寫할수 있다. Microcamera 로는 Microfilm 만이 아니고 film strip, microcard, microfishe 等 여러가지로 資料를 傳寫保管할수 있다. Microcamera 보다 먼저 나오고 아직도 使用되는것

으로는 Photostat Machine 이 있으며 近來에는 또한 直席複寫機가 많이 愛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傳寫된 資料는 利用時에 閱覽機를 使用하여야하는 不便이 있다. 그리고 例用이나 引用하는데 있어서 圖書보다 좀 繁雜한點 또한 없지 않은바 이러한 不便을 덜기 爲하여 Rapid Selector, FMA Filesearch Machine 등이 考案되었다.

2. 各種 分類計數機

가). 機械 分類機

記號카드로 文獻의 索引, 分類等에 使用하며 資料編纂 目錄作成等에도 使用된다. 記號카드 一枚當 一萬의 變位가 可能하며 類種의 複合計數가 可能하다.

나). 電氣計數機

I. B. M. 과 Remington Rand 에서 主로 製作하는 電氣計數機로 지금까지는 每分 600枚의 카드를 計上할수 있다. 現在 每分 1000枚의 카드를 計上하는 새로운 機械가 試驗途中에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計數器는 아래의 電子計數機와 마찬가지로 製作會社로부터 專賣로 빌어 쓰는것이 많았다.

다). 電子計數機

한가지 資料를 여러觀點에서 分析하는데 必要한 計數機로 資料의 分類, 配合에도 또한 使用된다. 資料의 供給(feeding)이 좀 複雜한것이 訓練을 要하지만 極히 專門인 參考質疑을 이 計數機가 解答하는것을 보면 實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3. 送信 及 複寫機具

送信 及 複寫機具로는 高速 Facsimile Transmission 이 있으나 이것은 普通寫眞 複寫-(例-microfilm)에 比하여 그렇게

큰 差가 없으며 또한 價格이 하도비싸서 現在까지는 實用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Teletype는 現在 送·受信用으로 많은 圖書館에서 使用하고 있으며 資料의 注文, 相互貸出, 其他 運用質疑, 參考質疑等の 多方面에 利用되고 있다. 現在 大部分의 中規模以上の 公共圖書館과 大學圖書館에서 많이 使用되는 自動貸出機는 貸出係의 事務를 簡素化하고 보다 빠른 奉仕를 할 수 있게 하고있다.

4. 音影機具

映音機, 錄音機, 電蓄, 幻燈같은 音影機具는 現在 모든 圖書館에 있어서 不可缺한 機具로 되어있다. 地域別 公共圖書館間에는 16mm 巡回文庫도 盛行하며 年間 平均 80—90萬本이 公共圖書館에서 上映된다고 한다.

이외에 UN圖書館에서 使用하는 Syncro-Scripter 나 New York Public 같은곳에서 使用하는 Indicator 등은 보다 便利한 機具라고 보았다.

第五章 司書와 司書教育

圖書館에서 專門의인 知識을 가지고 專門職을 맡아 보는 사람을 司書라고 한다면 司書에는 館長인 行政家에서부터 收書 分類, 細目, 定刊, 參考, 貸出, 兒童, 成人, 學校(司書教師) 音影, 特殊分野等 이루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種類의 司書들이 있다. 이러한 部分別 司書이기전에 모든 圖書館 專門職은 圖書館資料를 利用者에게 效果의으로 傳達하는 奉仕를 맡은 奉仕者인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의 司書教育의 發展過程은 곧 美國圖書館이 發展過程이기도 한 것

이다. 19世紀中葉까지도 司書教育이란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徒弟教育으로 現職에서 訓練받는것 뿐이었다.

1887年 Melvil Dewey가 Columbia大學에서 美國最初이 圖書館學校를 創設하고 1889 그가 New York州立 圖書館長이 됨과 同時에 學校도 Albany에 移傳하였으며 當時의 教育이란 한갓 實務訓練에 不過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 美國內에는 圖書館學 過程이 있는學校가 570校나 있으며 이中에 圖書館學科 또는 學校가 있는 곳이 268校, A. L. A.의 規準到達學校는 29校이다.

現在의 司書教育에는 두가지 判異한 方向이 있는데 첫째는 學部에서의 一般及專攻教育이 끝난 後에 大學院過程에서 一年間(碩士) 圖書館學을 專攻하는것과 둘째는 學部에서 一般教育和 圖書館專攻教育을 하는 方向이 即 그것이다. 이 兩者의 中間에 드려갈수있는 體制로서 大學院 過程을 前提로한 學部에서의 圖書館學過程을 教授하는 곳도 있다.

A. L. A.에서는 大學院水準만을 認定한다. 그리고 學部過程의 規準을 세워 師範大學에서의 司書教師 養成을 強調하고 있다. 大學院 過程에서의 圖書館學過程은 醫科나 法科 같은 豫科制度가 없으며 오히려 學部에서 보다 廣範圍한 一般過程을 거쳐 自己의 專攻科目을 마친後에 修學하게 되어있다.

大學院過程에서 履修하여야 할 學點은 平均的으로 36學點이며 大體的으로 다음의 다섯가지 科目으로 나누어진다. 1. 圖書館資料. 2. 讀者에의 奉仕. 3. 技術進行. 4. 組織과 運營. 5. 圖書館史及 圖書館의 機能. 위의 2項에서 參考奉仕가 獨立

되어나오는 곳도 있으며 이외에 時間이 있으면 各自의 選擇에 依하여 兒童, 科學 音樂 또는 法律, 科學等 分野別 過程도 擇할수있다. 參考奉仕의 書誌에는 어네나 人文, 社會, 自然科學의 各分野를 모다 履修토록 되어 있었다.

自然科學과 技術科學의 發達로 말미 아 마 이方面의 基礎를 가진 有能한 司書도 養成하여야 하며 또한 外國語에 能한 司書도 必要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學生들은 아직 圖書館學校에 큰 關心을 表示하지 아니하고있다.

가장 오래된 問題의 하나인 教授와 學生의 質問題도 아직 그대로 있으며 大部分의 圖書館學校는 規模가 작고 學生數도 적음으로 高度로 分化된 教授團을 가질수 없으며 다른 專門職 養成學校와 같은 教授들의 職位도 割當받지 못하고있다. 모든 圖書館學校가 全力을 다하여서도 아직 訓練받은 專門職員을 願하는 需要에 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現在 圖書館學校에 志望하여오는 學生으로서는 特出한 資質을 가진 專門職을 要求한 圖書館에 應答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問題는 아직도 若干 制約된 司書들의 社會的地位와 또한 全的으로 制約된 司書들의 俸給하고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惡條件下에서도 美國의 司書教育은 專門的인 教育이 되었고 또 널리 그렇게 認識되었다. 大部分의 司書志望者들은 지금 이러한 正式 圖書館學校를 거쳐 가며 또한 既成 司書들도 때때로 再訓練을 爲해 몇 講座를 履修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問題는 各圖書館學校가 그들의 卒業生의 質을 좀더 높이고 專門的인 研究와 計劃으로 確固한 地盤을 닦는것뿐 일 것이다.

結 論

以上으로써 美國의 圖書館界를 大略살펴본 報告는 끝난다. 筆者가 一年間美國의 圖書館과 司書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느낀 몇가지를 結論에 對身하고자 한다. 解放後 아니 正確히 말해서 1955年以後 새로운 Library Service라는 Idea와 面接을 하게된 우리는 아직도 正常的인 消化와 올바른 信念을 가지지 못한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이루어 놓은것을 그들이 이룬 時間의 몇分之一 이라는 짧은 時間에 吸收 消化 하여야 할것이다.

첫째로 듣는소리가 韓國에는 마땅한 分類體系가 없다고 한다. 分類體系가 없더라도 統一된 論目法만 있으면 우리는 司書로서의 가장 根本的인 使命 即 資料를 公衆에게 傳達하는 任務를 할수있을 것이다.

가장 根本的인 問題는 資料를 어떻게 分類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가장 效果的으로 利用할수 있도록 하느냐 인것이다.

둘째는 財政難을 든다. 圖書館의 微溫의 活動이 모다 돈에 歸因한다고 한다. 必要以上の 競争을 버리고 相互協同 計劃에 依해 資料의 蒐集을 合理化하는 方向을 擇하면 모자라는 圖書購入費도 效果的으로 使用될수 있을것이다.

셋째로 人的 不足을 말한다. 그러나 司書라는 사람은 世上에 태어날때 司書로서의 資質을 타고나는것은 아니다. 極히 모가난 사람이 아닌以上 適切한 訓練만 쌓으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中央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參加할수 있도록 地方別로 巡回講習會 같은 것을 가

지며 또한 In Service Training을 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百個의 似而非 圖書館보다 하나
의 알뜰한 圖書館을 마련 하도록 努力하
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은 하나의 社會教
育機關이다. 올바른 機能을 할수 있는 圖
書館으로 一般公衆에게 正常的이고 正當
한 圖書館과 司書의 使命을 認識 시키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初創 期の 混沌은
不可避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으나 初創期
일수록 正常的이고 올바른 認識을 줄수있
는 圖書館들이 본보기로 나타나야 할 것

이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모든 圖書館은 直
時로 館外 貸出을 開始하여 圖書館이 學
生들의 宿題나 試驗工夫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제구실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美國의 돈도 많고 冊도 많은 圖
書館들을 보고 나서도 새삼 느끼는 것은
다른 모든 機構와 마찬가지로 圖書館은
사람이 運營하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圖書館을 만드는 것은 冊이 아니라 사람
이라는 것이다.

學界初有의 良心的 計劃 !

『定期刊行物 記事索引集』

今年度 本協會 基幹事業의 하나로 推進되어 오던 “定期刊行物 記事索
引集”의 그 첫째권 (1960年度分)이 곧 出刊된다.

本書는 數年來 本協會가 計劃해 오던 宿望의 圖書로서 國內權威技術陣이
總動員되어 編輯된 國內刊 學術雜誌 約 300餘種의 記事索引集이다.

우리나라 初有의 本書는 學界는 勿論 一般研究機關 團體 및 個人에게 必備
의 參考書로서 이나라 學界의 良心的 걸잡이가 되어질것으로 自負하여 마지
않는다.